

통일의 기독교적 명분

손봉호 (대표주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성격의 것이든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 비록 개연성은 크지 않지만 한반도 통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온갖 갈등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이 꿈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언어, 풍속, 역사가 같은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였던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갈라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은 경제적으로도 대박일 것임이 분명하다. 양쪽이 지금 쓰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비용을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학문 등의 분야에 투자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이며 멋진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도 남북한 인구나 영토가 합쳐지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지금처럼 해외무

역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을 헐값에 중국에 팔지 않아도 되고, 철도망을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연결함으로써 유럽 수출비용을 줄일 수 있고, 러시아의 자원을 훨씬 싸게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남한의 선진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자원을 잘 결합한다면 국제 경쟁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

통일이 되면 지금처럼 안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소수민족 문제로 골몰하는 중국은 우리나라까지 넘보지 않을 것이고, 일본도 독도 문제로 괴롭히겠지만 안보문제까지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도 안보를 정치에 이용할 수가 없게 되고 선거 때마다 안보가 논란거리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만 이뤄지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

대국들과의 외교관계도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다. 사드, 핵우산, 미군주둔 등의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좀 더 의젓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재능이 합쳐지면 예술, 연예, 스포츠 등 문화 활동도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며 K-POP 등 이미 확산되고 있는 한류가 더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익들은 다른 나라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바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더 훌륭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힘으로 약한 나라들에도 울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익은 다분히 우리 중심적이고, 세속적이다. 구태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한국인이 라면 모두 바라는 것들이다.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할 만큼 가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북한 선교를 통일의 중요한 명분으로 간주한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먼 나라에도 선교를 하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 동포가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안 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실로 역설적이고 안타깝다.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통일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와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 동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의 복음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인권유린을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굶주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자유를 잃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모른 척하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주민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고 인간이 감내하기 힘든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를 끝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등 다른 분야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면 안 된다.

독일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통일이 이뤄졌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독 교회의 공헌이 매우 컸다.
서독 정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서독교회는 꾸준히 동독을 도왔다.

만약 북한 정권이 지금이라도 개혁되고 개방되어서 스스로 북한 주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보장한다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구태여 통일을 추구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정권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고 통일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남한의 주민 상당수는 경제를 비롯한 여러 상황이 통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불리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관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억울한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떤 이유에서라도 통일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독일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통일이 이뤄졌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독 교회의 공헌이 매우 컸다. 서독 정부의 도움도 있었지만 서독 교회는 꾸준히 동독을 도왔다. 심지어 동독으로 보낸 원조 상당 부분

을 독재자가 불법으로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왔다. 남한 교회도 그런 사랑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교회도 거기서 배울 것이 많다. 사람은 무조건 먹어야 산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는 북한 동포들이 먹을 수 있고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탈북민을 돕는데 더 큰 열심을 보일 임무가 있다. 그들을 방치해 놓고 북한 동포들의 기아와 인권을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